



# 천주교 몬트리올 한국 순교 성인 성당

Mission Saints Martyrs Coréens  
(Korean Roman Catholic Church in Montreal)

2461 Rue Saint-Jacques, Montreal, QC H3J 1H8

TEL 514-989-1033/ FAX 514-989-2382

E-mail : montrealkcmc@gmail.com/ 다음카페 "몬트리올 한국순교성인성당"

가해 제 1925 호 (2026. 6. 21)

연중 제12주일

## 전례 안내

주일미사	오전10시30분 (매월 마지막 주일 청소년 전례)
평일미사	오전10시(수금토) 오후 7시 (화 목)
토요특전(청년)	오후 5시
고해성사	미사 전
성 시간	매주(목) 미사후
봉 성 체	사전 신청
혼배성사	1년전 신부님 면담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11시 (사전신청 필수)

## 주임사제 및 사목회장

주임사제	최동철(다미안)
	☎ 514-424-6213
	sstminmontreal@gmail.com
사목회장	김광수(바오로)
연령회장	김도날드
	☎ 514-804-9094

## 사무실 운영시간

주 일	(일) 09:30~13:30
평 일	(화~금) 09:00~15:30
사무장	김성한(안드레아)
	☎ 514-989-1033

성가 ♪	연중 제12주일, 6/21
입 당	201
봉 헌	510
성 체	166, 506
파 견	202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0,10-13

화 답 송 시편 69(68),8-10.14와 17.33-35(◎ 14ㄷ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돌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 2 독서 로마서 5,12-15

복음환호송 요한 15,26.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복 음 ✞ 마태오 10,26-33

전례봉사자	연중 제12주일, 6/21	연중 제13주일, 6/28
해설	조혜경	김아영
독서	박찬열, 권민	조영신, 서정아
시종복사	목영수, 서정협	김준호, 김진홍
초 복사	윤성현	최정욱
제물봉헌		엔디지 구역
성체분배	김광수, 황성연	이길수, 오상근
친교	구역별 음식 나눔	엔디지 구역

▣ 우리의 정성

☞ 미사 지향

일자	구분	지향	봉헌자
6/4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엔디지 구역 일동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김운철 가족
6/11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익열 이사벨라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생	이 제니퍼를 위하여	문 로사 가족
"	생	김기환 가말리우스를 위하여	김미경 모니카
"	생	이재복 요셉을 위하여	김미경 모니카
"	생	이재복 요셉을 위하여	유수정 가브리엘라
6/12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임명빈 스테파노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생	김기환 가말리우스를 위하여	김미경 모니카
"	생	이재복 요셉을 위하여	김미경 모니카
"	생	이재복 요셉을 위하여	유수정 가브리엘라
6/13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생	이재복 요셉을 위하여	유수정 가브리엘라
"	생	김교중 안드레아를 위하여	가족
6/16	위령	이화숙 마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경성 가족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임명빈 스테파노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생	이재복 요셉 건강을 위하여	유수정 가브리엘라
"	생	이재복 요셉 건강을 위하여	심민경 에스텔
"	생	정운택 베네딕토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문 로사 가족
"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조용인 스테파노
6/17	위령	정운택 베네딕토 영혼을 위하여	문경애 로사
"	위령	이건수 아벨 영혼을 위하여	가족
"	위령	안중만 요하킴을 위하여	박종호 토마스 가족
"	생	이상자 안나 건강을 위하여	박종호 토마스 가족

☞ 우리 본당 살림은 우리 힘으로

	6/7(일)	6/14(일)	누 계
주일헌금	1,457.00	1,454.00	32,795.55
교무금	4,825.00	2,000.00	54,986.00
감사헌금	1,485.00	610.00	11,500.00

▶ 교무금(19명) 6/14 (일)

- 김동헌, 목영수, 박 훈, 박동환, 박시영, 박정권, 송재언, 엄기인, 오상근, 이길수, 이영애, 이왕림, 이원준, 임형배, 정운택, 최영진, 최정욱, 허경만, 홍미숙

▶ 감사헌금 6/14 (일)

- 강이환, 김세호, 서호주, 신기룡, 양희원, 이길수, 이원준, 임형배, 장인영, 정도영, 허경만, 홍선기, 조연정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실만큼,  
우리는 하느님의 귀한 존재이고 자랑거리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에게도 하느님은  
가장 큰 자랑거리여야 한다.

하느님을 숨겨 두지 말자.

누구보다 올바르게, 떳떳한 삶으로 하느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자.

- 조재형 안드레아 신부(수원교구 궁리본당 주임)

☞ 목주기도 (2027년 성모의 밤 봉헌)

지난주 누계	금주	금주 누계
2,613 단	1,576 단	4,189 단

교우 환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후순/멜라니아, 이옥주/마리아, 최은숙/멜라니아, 전영길/아브라함  
정영섭/세바스찬, 김용옥/데레사, 송재훈/루카, 조필구/안토니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6/24) 한요한 세례자 요한 (6/28) 홍미숙 마르셀라

## ■ 본당 소식

	행사	모임
이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외미사(본당) 및 구역별 식사</li> <li>중고등부 캠프</li> </ul>	
다음주		연령회

### ▶ 야외미사 안내

- 미사 일시 및 장소: 오늘 오전 9시30분 대성전
- 식사 장소: 앙그리농 공원
- 이번 야외미사는 9시 30분에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앙그리농 파크로 이동하여 피크닉을 진행합니다.
- 우천시 본당에서 미사 후 명절 음식 나눔과 동일하게 구역별 식사를 하게 됩니다.

### ▶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캠프 안내

- 주일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여름캠프를 다녀옵니다.
- 일시: 6/26(금) 오전 10시 성당 집합 ~ 28 (일) 오후 12시 30분 도착
- 장소: 1631 Rang du Bord de l'Eau, Municipalité de paroisse de Sainte-Anne-de-Sabrevois, QC J0J 2G0
- 참가비: 100\$
- 문의: 조현우 루카 (438-865-3022)
-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독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사를 통해 배포되는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자부모회 새 임원진 소개

- 다음과 같이 자부모회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 회 장 : 이미경 마리야
  - 부회장: 김형주 대건 안드레아
  - 총 무 : 이경련 로사
  - 회 계 : 최예린 루치아
- 임기 2년간 주일학교 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전 자부모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차기 임원진들에게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 ▶ 주일학교 교사회 여름캠프

- 일시 : 7/3(금) - 5(일)
- 장소 : 536 Chem. de courcheval, Saint-Adolphe-d'Howard. J0T2B0
- 주일학교 교사들이 2박 3일간 캠프를 갑니다. 캠프기간동안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바랍니다.

### ▶ 온타리오 제21차 Choice "선택" 주말 안내

- 선택 주말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며 나누기 위하여"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하는 2박3일 프로그램입니다.
-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소속한 사람들과 공동체, 또 그간의 내 모습을 돌아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운이 깊게 남겨질 주말입니다.
- 일시 : 7/17(금) ~ 7/19(일)
- 장소 : Manresa Jesuit Spiritual Renewal Centre, Pickering, ON
- 대상: 만 23세~35세 미혼 청년 (1991년생~2003년생)
- 참가비: \$270
- 신청 방법: 본당 내 포스터 및 한맘 성당 Instagram 공지
- 문의: 최승환 대건안드레아 (519) 721-4015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명에 이르러  
나에게 배워라

마태 11:29

한맘성당

### [ 2026년 교황님 기도 지향 ] 6월 :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친교실 청소

6월	엔디지
----	-----

### ◆ 미사 참여신자

(6/9 ~ 6/14)

평일	(화)	(수)	(목)	(금)	(토)	(특전)
						9
주일	교중	216	합계	225		

주보공지 원고 마감 : 매주 수요일 낮 12시  
주보공지 이메일 : montrealkcmc@gmail.com

## 교황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한 관심 요청

가톨릭신문 2026-06-16 제 3496호 1면

2027 서울 WYD 정부 지원 약속... 교황 "남북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6월 15일 교황청 사도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레오 14세 교황이 선물로 준비한 사도궁 소개 책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티칸 미디어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5일 교황청 사도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처음으로 단독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국제 현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대한민국의 민주화 등 한국 사회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한국 가톨릭교회가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감사를 전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평화 정착을 위해 적대적 자세보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변함없는 관심과 축복을 요청하자 교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이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로서는 최초로 2027 서울 WYD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WYD를 계기로 교황을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WYD가 전 세계 청년들이 연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황은 한국 정부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관심과 WYD에 대한 지원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를 표현한 <하느님의 품> 조각상과 백자 다용도 합(盒)을 선물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이 대통령에게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풍요의 뿔 도자기', 사도궁을 설명하는 책을 선물했다. 교황청은 '풍요의 뿔 도자기'가 성령의 열매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고,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선물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접견한 후, 국무원에서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와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불확실성을 더해 가는 국제질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과 교황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 면담에 앞서 14일에는 교황청 방문 첫 일정으로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라자로) 추기경이 주례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여했다. 미사에는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한국 정부 대표단, 로마에 거주하는 한국교회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도 함께했다.

유 추기경은 미사 강론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고 형제자매가 갈라져 있다"며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모두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사 후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며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짙은 어둠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 [신앙에 주파수를 맞춰요] 복음과 믿음

가톨릭신문 2026-06-21 제 3496호 20면

신학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양심에 따르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스스로의 깨달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던 이들, 즉 죄인과 세리, 창녀와 강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인생의 꼴찌들, 밑바닥 인생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교 이전에는 죄인, 세리, 창녀,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곧 구원에서 제외된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엘리트나 학자, 귀족이나 부유한 이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하고 못 배운 이들, 소외된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못 배운 어부들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로부터, 죄인이자 세리였던 마태오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혁명주의자 시몬으로부터, 일곱 마귀가 들렸던 마리아 막달레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얼마나 위대한 삶을, 얼마나 참된 진리와 행복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 준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역사이다. 아무리 꼴찌 인생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인간은 완전히 선할 수 없다. 인간은 온전한 의인일 수 없다. 그러나 ‘선’ 자체인 하느님을 지향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은 가슴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사랑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상처를 받아 사랑의 문을 닫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 위에서의 지극한 사랑, 나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준 그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흠이 없는 의인이어야, 성인들처럼 완전한 사랑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임을, 나 자신이 연약함과 상처를 지닌 인간임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나 자신이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구세주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성화주 성령님 앞에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인간임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창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현세에서 필요한 은총 주심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 죄를 지어 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 [교회상식 더하기] 게이름은 사실 기도문이다?

가톨릭신문 2026-06-21 제 3496호 20면



게이름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저녁기도 찬미가에서 왔다. 초그로텐 성무일도 성가집」에 실린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저녁기도 찬미가. 벨기에 겐트대학교 도서관

###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찬미가에서 유래

“이 동요 외국어로 부를 수 있어?”

어릴 적 친구들과 사이에서 종종 하던 장난입니다. 이를테면 “<작은 별>을 외국어로 부를 수 있다”며 “도도솔솔 라라솔~”이라며 게이름으로 노래하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는 귀여운 장난입니다만, 이 게이름은 실제로 외국어, 그것도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심지어 이 “도, 레, 미~” 안에 교회가 오랫동안 이어 온 기도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게이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11세기 이탈리아의 귀도 다레초 수사입니다. 귀도 수사는 4선 보표 체계를 만들어 음높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이름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귀도 수사가 게이름을 지을 때 눈여겨 본 것이 바로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바치는 「성무일도」의 저녁기도 찬미가의 첫 부분입니다. 라틴어로 “Ut Queant laxis Resonare fibris Mira gestorum Famuli tuorum Solve polluti Labii reatum Sancte Iohannes”라는 문구로 이뤄져있는데요. 우리말 「성무일도」에는 “세례자 요한이여 들어주소서. 위대한 당신 업적 기묘하오니 목소리 가다듬어 찬양하도록 때 묻은 우리 입술 씻어주소서”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이 찬미가는 단계적으로 음이 올라가는 형식의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다장조의 여섯 음과 순서대로 맞아떨어지는 우트(Ut), 레(Re), 미(Mi), 파(Fa), 솔(Sol), 라(La)를 각 음의 이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트’는 후에 발음하기 쉽게 ‘도’로 이름이 바뀌었고, 17세기경에 일곱째 음인 ‘시’가 더해져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게이름이 완성됐습니다. 참고로 시(Si)는 성 요한(Sancte Iohannes)의 머리글자입니다. 도(Do)는 주님을 뜻하는 도미누스(Dominus)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찬미가를 통해 기리는 성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에 앞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라고 증언하면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요.

게이름도 역시 게이름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귀도 수사가 게이름을 만든 것은 누구나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통해 성가대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게이름과 악보를 통해 어린아이도 쉽게 하느님을 찬미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이름 안에는 “목소리 가다듬어 찬양하도록 때 묻은 우리 입술 씻어주소서”라는 교회의 오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미사 때는 어린 시절 배운 “도, 레, 미~”를 생각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셨듯 “성가는 두 배의 기도”니까요.

##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간 모임			
주일	시간	단체명	
일요일	9시	레지오	창조주의 모후 Pr.
	9시		셋별 Pr.
	9시		자비의 모후 Pr.
	9시		희망의 모후 Pr.
일요일	9-10시	주일학교	교리실
일요일	12시	첫 영성체 교리	3월 시작
일요일	미사후	성가대 연습	대성전

월간 모임	
시간	모임
첫째주	(수) 명도회(10:30 미사후)
	(일) 사목회, 성가대 월례회
둘째주	꾸리아(주일미사 후)
	(일) 구역장 회의 청소년분과 성모회
셋째주	(일) 자부모회
넷째주	(일) 연렝회(주일미사 후)



**MARCHÉ KOREA**  
김병호 이레네오  
(514) 487-1672  
6170 Sherbrooke W.  
marchekorea.com



**서정협 유스티노**  
Courtier Immobilier  
Groupe Sutton - Sur l'île Inc  
주택/상가/렌트 종합 부동산  
Tel) 514-244-0751  
jsuh@sutton.com



캐나다 전지역 유학상담  
[고고몬트리올]  
카톡 아이디 : GOGOMONTREAL  
www.gogomontreal.com  
514-473-1311

**GLOBAL TAX SERVICES** 

비즈니스 컨설팅 & 법인설립  
개인 세금신고 & 양육비 신청  
www.globaltax.ca  
514-225-7441  
gtsmontreal@globaltax.ca

**Peter Park**  
Teaching Professional  
Ingenieur Allemand  
  
8370 Cote St. Luc Road  
Tel:(514) 433-0223  
Montreal/Longueuil/Brossard



팡팡에서 당신과의  
소중한 컷  
**'인생네컷'**  
1226 Mackay St.  
(514) 938-8886



**R&K Consulting**  
캐나다 유학/취업/이민  
권민 보나 (Kate Kwon)  
퀘벡/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상담 신청]  
www.Rnk-consulting.com  
카톡 검색 : 캐나다 이민 R&K  
514-979-0830



허지연 한국 변호사  
캐나다 (416) 518-0595  
한국 070-4458-4645  
lawyerjiyeonhur@naver.com  
한국 부동산 매매 / 상속 / 민형사

<주보 광고 모집>

- √ 주보 광고 연중 신청
- √ 운영위원 이영애 린다  
(514-298-8434)
- √ 사무실 (514-989-1033)

<레지오 단원 모집>

- √ 레지오 단원 연중 모집
- √ 꾸리아단장 이재순 아녜스  
(514-824-4812)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교리교육을 위해 봉사해 주실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 √ 대상: 견진을 받은 만18세 이상 신자
- √ 문의: 주일학교 교장 함소정 노엘라 (514-625-6573)



Fr. Damian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압도감입니다.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어찌지?'  
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걱정입니다.